

바빌론에 포로 된 데서 돌아온 후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핵심적인 방면들

4/10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0:11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2:13

13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4:2

2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애 3:22-23

22 여호와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고전 4:1-2

1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2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계 17:14

14 그들이 어린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최고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전반부 삼십구 권을 기록하셨을 때 그림들을 사용하셨다. ... 그 그림들은 구약에 있는 예표들과 상징들과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이다(롬 5:14). 몇몇 예표들은 예언이기도 하다. ... 구약에 있는 가장 큰 예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서, 이들은 오늘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한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가올 일들을 상징하는 커다란 예표이다.(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1 장, 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 장 9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신실하시지만, 우리에게 큰 집이나 보수가 좋은 직업을 제공하시는 데 있어서는 신실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지를 돌보시는 데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도록 허락하실 때, 우리를 우상들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분 자신께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분의 목적에 신실하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과 소유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실 수있게 하시는 데에 신실하시다. 우리의 집이나 소유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마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그분을 마시게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 데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누리고 흡수하고 동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되시어 그분의 경륜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마시는 대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을 마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셨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우상이 된 성전을 헐어버리기까지 하셨다. 우리는 자신이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는 데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우상들을 처리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마시게 하신다. 우리 모두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서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동화시켜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증가되셔서 그분의 배필을 통해 그분의 표현을 얻으심으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으며 많은 다른 남편에게 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후, 우리는 약간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회개하고 운다면, 우리의 회개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회개한 후, 우리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누리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4 장, 39-41 쪽)

고린도전서 4 장 2 절에서 ... '여기에서'는 '청지기 직분인 분배하는 사역에서'를 의미한다. 이 분배하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 장 2 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다. ... 나는 형제회와 함께 있었을 때, 결코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청지기로서 신실했다고 언급하는 것 같다.(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34 장, 33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3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2장;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1, 3, 6, 8, 12장; 에스라 라이프 스타디, 1장

4/11 화요일

아침의 누림

대상 16:8
8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려라.

출 3:14
14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여라."

출 6:8
8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

계 1:4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히 11:6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 35:11
11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과 여러 민족의 무리가 나오고 너의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름이고 '여호와'는 친근한 이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관련되고 '여호와'는 그분의 사랑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되고 '여호와'는 그분의 친근함과 관련된다. 창세기 1 장은 창조를 다루기 때문에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는다. 비록 1 장에서 사람이 언급되지만, 이것은 창조와 능력과 관련된다. 2 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근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2 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된다. ... 2 장에서 '여호와'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 말하는 것은 2 장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바로 1 장에 언급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시다. (위치만 니 전집, 9 권, 부흥보(2), 21 기, 7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엘 샷다이가 공급과 약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여호와와는 존재와 성취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출 3:14, 요 8:24, 28, 58)이시자 성취하시는 하나님(출 6:6-8)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히 11:13). 그들의 체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분이셨으나 여호와와는 아니셨다. 그들에게 그분은 약속하는 하나님이셨으나 성취하는 하나님은 아니셨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 장 1 절부터 8 절까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 모세에게 좋은 땅에 관해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 창세기 15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13 절과 14 절에서 사백 년 후에야 좋은 땅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 사백 년이 다 찼을 때 모세는 팔십 세였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취될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야 한다. 특별한 의미에서, 동사 '-이다(to be)'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된다. 이 동사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이 우주 안에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약속하는 분이므로 서 엘 샷다이시지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으로서는 여호와 곧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 자신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신다. 여호와로서 하나님은 다만 존재하신다.

약 사천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에 관하여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실패하실 수 없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 분은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와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 성취의 단계에 있다. 성취의 단계는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모두 포함한다. 신약의 약속 중 한 가지는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마 16:18)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다. 젊은이들이여, 이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특별히 여러분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에 신실한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 기나긴 노정이 있다는 것과, 많은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엘 샷다이이실 뿐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간증하고 싶다. ... 나는 나의 말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동사 ‘이다’의 실재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실 것이다.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저의 문제들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14 장, 186-187, 189, 19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9 권, 부흥보(2), 21 기, 여호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5, 14 장

4/12 수요일

아침의 누림

대하 36:23

23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분을 위한 집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그를 올라가게 하라!”

신 12:5

5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엡 4:3-4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 17:21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계 1:11

11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133:1-3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교회의 지방적인 터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이다. ... 온 우주에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몸이 있고, 각 지방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다. 이러한 유일한 하나가 교회생활의 기본 요소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그 영의 하나(엡 4:3)이므로,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실행하는 하나는 반드시 그 영의 움직임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영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영 또한 교회의 터의 기본 요소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 지방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지 교회가 속한 지방 또한 교회의 터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므로 한 지방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터는 반드시 그 영에 의해 집행되는 하나와 그 지방에 의해 보호되는 하나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하나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요 항목의 중점, 1 장, 48-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교회의 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교회의 터를 구성하는 첫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이다. 이것은 ‘그 영의 하나’(엡 4:3)라고 불린다. 주님은 요한복음 17 장에서 이 하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의 연합의 하나이다. 이 하나는 아버지의 인격을 지칭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데(요 17:6, 11),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다. 심지어 이 하나는 진리인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을 통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요 17:14-21). 이 하나는 최종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다(요 17:22-24). 이러한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인 그리스도로 생명의 영에 의해 거듭났을 때 그들의 영 안으로 분배되었다.

교회의 터의 둘째 요소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인데,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이 유일한 터 안에 세워지고 존재한다. 신약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인 우주적인 교회의 표현으로서 각 도시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행 8:1), 안디옥에 있는 교회(행 13:1),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롬 16:1), 고린도에 있는 교회(고전 1:2), 아시아의 일곱 도시에 있는 일곱 교회(계 1:4, 11)를 본다. 각 도시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경계로서, 그 교회의 지방적인 터이다. 이처럼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는, 침례교나 장로교나 루터교나 감리교나 성공회 같은 여러 교파들이 서로 분열된 것처럼, 교회가 서로 다른 터가 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항목에 의해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 준다.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하나(oneness)의 영의 실재이다. 하나의 영의 실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유일한 터인 지방이라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 있는 실재이신(요일 5:6, 요 16:13) 그 영의 실재이다. 바로 이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실재가 되고 살아 있게 된다. 또한 이 영을 통해 지방이라는 터가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적용된다. 또한 교회의 참된 터가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도 이 영에 의해서이다(엡 4:3-6).(주의 회복에 관한 간략한 소개, 1 장, 42-4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3-5, 10 장; 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9-10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8년, 1권, 교회의 실지적 표현, 6, 8-9 장*

4/13 목요일

아침의 누림

대상 16:16-18

16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
17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는 율례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시며
18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유업의 몫으로 주리라.’ 하셨다.

창 15:8-10

8 그러자 아브람이 말씀드렸다. “오, 주 여호와님!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10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가운데를 둘로 갈라 서로 마주 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들은 둘로 가르지 않았다.

요 1:14, 17, 29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롬 6:9

9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에 관한 그분의 약속을 반복하셨을 뿐 아니라 땅에 관한 그분의 약속도 반복하셨다. ...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씨에 관하여 하신 약속을 믿었다. 창세기 15 장 7 절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땅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에 관하여 하신 약속을 믿는 데에는 믿음이 부족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땅에 관하여 하신 약속을 믿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어야만 하셨다. 창세기 15 장 9 절부터 21 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확증하셨음을 본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44 장, 641 쪽, 45 장, 6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와 암염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창 15:9). ...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갈라지고 죽음을 당한 세 가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인성 안에서 사셨다. ...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시다(요 1:14, 29). 그러므로 창세기 15 장에 있는 세 가족은 우리를 위하여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함에 틀림없다.

암송아지는 화목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다(레 3:1). ... 하나님께서 그분께 부름받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제물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제물이셨다. 암염소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레 4:28, 5:6).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인 우리는 얼마나 선한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화목제물에 이어서 속죄제물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의 암염소, 곧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셨다. 그다음으로 번제물이 필요했는데, 번제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야 함. 9 권을 상징한다(레 1:10). ...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부름받은 이와 언약을 맺으실 때 통과해 가신 모든 제물이셨다.

죽이지 않은 새 두 마리는 부활하시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레 14:6-7).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주로 신성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요 1:32). 그러므로 가족은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새들은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5 장의 새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여전히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요 3:13), 또한 전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시다. ... 그분은 이 땅을 걸어가신 사람으로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하늘들에 오르시어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살아 계신다. ... 그분은 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지셨고, 또한 신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다.

성경의 예표에서, 산비둘기는 고난당하는 삶을 상징하고, 어린 집비둘기는 믿는 삶 곧 믿음의 삶을 상징한다. 땅에 사시는 동안, 주 예수님은 항상 고난당하셨고 또한 믿으셨다. 그분은 고난당하는 삶의 방면에서는 산비둘기이셨고, 믿는 삶의 방면에서는 집비둘기이셨다.

새는 두 마리였는데, 숫자 2 는 증거를 의미하고 또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행 5:32). 살아 있는 새 두 마리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낸다(요 14:19-20, 갈 2:20). ... 요한계시록 1 장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17-18 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살아 계신 것이 그분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거는 항상 살아 있는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가 살아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증거도 없는 것이다. 살아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아 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45 장, 646-6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45 장; 신약의 결론, 14 권, 교회, 230 장

4/14 금요일**아침의 누림**

마 6:10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요 15:7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 4:11

11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상 4:10

10 아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악에서 지키시어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베스의 간구를 이루어 주셨다.

빌 3:12, 14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요일 5:14-15

14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갖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며 청한 것을 그분에게서 받은 것도 압니다.

역대기상 4 장 10 절에서 우리는 한 유다 자손이 드린 특별한 기도를 본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악에서 지키시어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 하나님은 야베스의 간구를 이루어 주셨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 즉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한 누림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바란다.(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3 장, 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일의 한 가지 주된 원칙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로 그분께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여러 해 전에 기도에 경험이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는 모든 영적인 일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첫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의도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둘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어 그분의 뜻과 계획과 갈망과 열망을 알게 하신다.

셋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그분께 다시 들려드린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룬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 낼 것이다. 그 결과, 넷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는 셋째 단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다시 들려드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가치 있는 기도는 모두 다시 들려드리는 기도이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는 것만 위한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에 반항하는 기도만이 어떤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 의해 통제받는다. 하나님은 기꺼이 많은 일을 하고자 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분은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그분께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큰 원칙이고,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우주에는 세 가지 의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의지이며, 세 번째는 사람의 의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사탄을 속히 멸망시키지 않으실까?”라고 말하며 궁금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이

그분과 합하여 사탄을 처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사탄에게는 사탄의 의지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사람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가 그분과 합하기를 원하신다. ... 하나님은 홀로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께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실 때, 첫째로 그분의 뜻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넣어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기도로 반항한 후에야 무언가를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하신다. ...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반항하는 의지를 원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 없이 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각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수행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해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의 일임을 본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말해 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에서 나온 기도는 모두 쓸모없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다시 들려드린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을 출발점으로 하며, 사람은 단지 전달하고 반항하는 기관일 뿐이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기도는 영적인 가치가 없다.(워치만 니

전집, 38 권, 일반 메시지(2), 41 장, 44-45, 47-4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 3 장; 성경에 있는 10 가지 노선, 1 장

4/15 토요일

아침의 누림

대하 20:22

22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나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시 86:12

12 오, 주 저의 하나님! 저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렵니다.

시 22:22

22 제가 주님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제가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 146:2

2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13:15

15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계 19:5-6

5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노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큰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고 하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6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다. 성도의 영적 생활의 가장 높은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다’(시 22:3). 하나님의 이름과 심지어 그분 자신도 찬양을 통해 높아지신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찬양을 통해 솟아오른다.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 찬양할 때 우리는 시련 위에 있게 된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일어나서 “주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 찬양의 희생 제물보다 더 사람을 무르익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징계를 찬양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문이 열릴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48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상), 16 장, 326, 339-3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기에 쇠망하고 있었다. 매우 약했고 모든 것이 휘청거리는 상태였다. ...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패배가 확실하다고 느꼈다. 여호사밧은 부흥된 왕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 ... 그는 노래하는

이들을 세워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게 했다 (대하 20:21). 그는 또한 노래하는 이들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찬양하게 하였다. ...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니...”(22 절).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 순간에’라는 뜻이다. ... 찬양만큼 주님의 손을 속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없다. ...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매일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하기만 해도 많은 일에서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가 전쟁에 달려 있지 않고 찬양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다. ...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찬양으로도 사탄을 이긴다. ... 역대기하 20 장에 의하면, 저쪽에는 군대가 있고 이쪽에는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있다. 이쪽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이들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이들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많은 이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그들은 자주 시험을 받는다. ... 여호사밧처럼 그들은 어려움에 갇혀 있다. 저쪽은 너무나 강하지만 이쪽은 너무나 약하다. ... 그들의 문제는 너무나 엄청나서 그들의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이럴 때 그들은 자신의 문제만을 주목하기가 쉽다. ... 사람은 시험받을수록 더 쉽게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얽매인다. 이때가 가장 큰 시험의 때이다. ... 사람은 시험받을수록 점점 더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험을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신뢰한다. 그들은 시험을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기를 배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기를 배워야 한다. 고개를 들고 주님께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씀드리라. 큰 소리로 하는 찬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상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찬양의 희생 제물이다. 찬양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원수 사탄은 그 찬양에 의해 패배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희생 제물은 매우 효능이 있다. 여러분의 지극히 높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쳐 나오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견디어 내고 이기게 될 것이다. 찬양할 때, 여러분은 승리의 길이 여러분의 눈앞에 활짝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48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상), 16 장, 334-3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48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상),

추가로 읽을 말씀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8장

4/16 주일

아침의 누림

대상 29:10-16, 18

10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오, 여호와,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11 오, 여호와님! 위대함과 능력과 광채와 승리와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 여호와님! 왕국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모든 것의 머리로서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12 부와 영광이 모두 주님에게서 나오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 능력과 권능이 있으니, 모두를 위대하게 하시고 또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13 저희의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14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기꺼이 바칠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저희는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15 저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 저희는 주님 앞에서 나그네요 체류자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16 오, 여호와 저희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집을 건축해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한 것은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며,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18 오, 여호와,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이것을 마음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 17:21-23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찬송: 124 (英) 찬양하세 주의 승리 (中:109)

- 1 찬양하세 주의 승리 주는 승리하셨네 죄를 씻고 옛사람 다 끝내 구속-이뤘네 십자가로 사탄 깨고 악령 묶어 이겼네!
- 2 찬양하세 주의 부활 주는 부활하셨네 죽음 권능 삼키시고 생명 해방-하셨네 음부 어둠 타파하여 부활 능력 나타내!
- 3 찬양하세 주의 승천 주는 승천하셨네 우주 안에 뛰어난 주 존귀한 이름 얻었네 모든 권위 얻으신 주 발로 원수 밟겠네!
- 4 할렐루야 주의 승리 주 이미 승리했네 할렐루야 주의 부활 주 이미 부-활했네 할렐루야 주의 승천 주 이미 승천했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5:1-1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9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 Justification and Propitiation*
로마서 3:21-31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msgs. 5; Crystallization-study of the Epistle to the Romans, ch. 5;
Supplemental Reading: The Normal Christian Life, ch. 1
Hymn: 1003
churchinnyc.org/bible-study